

매경추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The Power of Love(사랑의 힘)’는 1984년에 발표된 노래로 캐나다 여가수 셀린 디옹이 커버해 1994년 2월 4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온몸이 굳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임에도 2024년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서 ‘Hymne a L’amour(사랑의 찬가)’를 열정적으로 불러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사랑의 힘’만큼 강력한 것이 ‘데이터의 힘’이다. 좋은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간 연계, 활용을 통해 보다 중요한 정보를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상용화로 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힘’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믿고 쓸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제공돼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데이터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다양한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390여 종의 다양한 통계마이크로데이터를 MDIS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인구·가구·기업 등 통계등록부, 인가용 마이크로데이터 및 통신·카드·신용 민간 데이터 등 150여 종의 데이터를 전국 16개의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한다.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새로운 지표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데이터 간 연계, 활용을 거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연구 결과는 정책, 연구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에 활용되고,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밑거름이 된다.

데이터제공서비스 외에도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데이터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가 데이터 연계,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분석 지원, 이용자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그간 활용 대회에는 학생,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참가했는데 다양한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2023년 대회 대상작인 ‘비재무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휴·폐업 예측 모델 제안 및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재무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직원 수, 퇴사율, 근로자 지위 등 비재무데이터를 통한 신용평가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데이터의 힘

밝혔다. 2025년 대회 수상작인 ‘빈집 발생의 다차원적 진단과 관리 전략’ ‘출산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정책 제안’도 ‘빈집’이나 ‘저출산’ 등 주요 이슈와 관련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100년을 맞이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성료됐다. 조사 결과는 통계뿐만 아니라 인구, 가구, 주택등록부로 재탄생해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위한 근간이 될 것이며 인구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국가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충실히 제공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이 질 좋은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데이터의 힘’을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 본다.